한국사회적질학회 2018년 가을 학술대회

여성·가족 정책의 이슈를 통해 본 사회적 질

- 일시 : 2018년 11월 3일 (토), 14:00~19:00
- 장소 :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문과대학 314B호
- 주최 : 한국사회적질학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한국사회적질학회 2018년 가을 학술대회

[세부일정]

▸일시 : 2018년 11월 3일 (토), 14:00~19:00

▸장소 :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문과대학 314B호

제1부 학술대회 | 여성·가족 정책의 이슈를 통해 본 사회적 질 [14:00-17:00]

시간	구분	내용
14:00~14:10	개회선언 및 인사말	• 이소영 (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14:10~14:20	휴 식	
14:20~14:50	주제발표 1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쟁점** • 발표 : 이화선 (서울디지털대학교) • 토론 : 홍세영 (한국외국어대학교) • 사회 : 이소영 (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14:50~15:00	휴 식	
15:00~15:30	주제발표 2	**일-가족 양립지원의 정책담론 및 정책수단을 통해 본 가족친화적 사회정책** • 발표 : 박보영 (극동대학교) • 토론 : 박범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 사회 : 이소영 (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15:30~15:40	휴 식	
15:40~16:10	자유발표	**ser-M을 기반으로 한 아모레퍼시픽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 • 발표 : 엄재근 (㈜공공협력원) • 토론 : 양윤모 (극동대학교) • 사회 : 이소영 (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16:10~16:20	휴 식	
16:20~17:00	종합토론 및 폐회선언	• 이소영 (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7:00-18:00]

• 진행 : 송시형(한국사회적질학회 연구윤리위원장 겸 편집위원장)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안내 및 앱(App) 소개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안내 및 자료 배포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제3부 총회 [18:00-19:00]

• 의장 : 이소영(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 사회 : 박보영(한국사회적질학회 이사)

1. 성원보고_ 이사 박보영
2. 제2차 총회 개회선언_ 학회장 이소영
3. 의장 인사말_ 학회장 이소영
4. 학회활동 보고_ 이사 박보영
5. 안건 심의 및 의결_ 학회장 이소영 / 이사 박보영
   - 제1호 안건 : 2018년 회계결산 보고 및 추인
   - 제2호 안건 : 2019년 사업계획안·예산안 보고 및 승인
   - 제3호 안건 : 2019~2020년 임원 선출 및 승인
   - 제4호 안건 : 기타
6. 기타 안건 토의_ 학회장 이소영
7. 폐회선언_ 학회장 이소영

* 총회 완료 후 만찬

[목 차]

2018년 가을 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제1부 학술대회 | 여성·가족 정책의 이슈를 통해 본 사회적 질

❑ 주제발표 1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쟁점 ····· 7

▸발표 : 이화선 (서울디지털대학교)

▸토론 : 홍세영 (한국외국어대학교)

❑ 주제발표 2

일-가족 양립지원의 정책담론 및 정책수단을 통해 본 가족친화적 사회정책 ····· 21

▸발표 : 박보영 (극동대학교)

▸토론 : 박범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 자유발표

ser-M을 기반으로 한 아모레퍼시픽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 ····· 33

▸발표 : 엄재근 ([사]공공협력원)

▸토론 : 양윤모 (극동대학교)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안내 및 앱(App) 소개 ····· 45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안내 및 자료 배포 ····· 46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 50

제1부 학술대회

논문발표

여성·가족 정책의 이슈를 통해 본 사회적 질

[주제발표 1]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쟁점

- 이화선 (서울디지털대학교)

[주제발표 2]

일-가족 양립지원의 정책담론 및 정책수단을 통해 본 가족친화적 사회정책

- 박보영 (극동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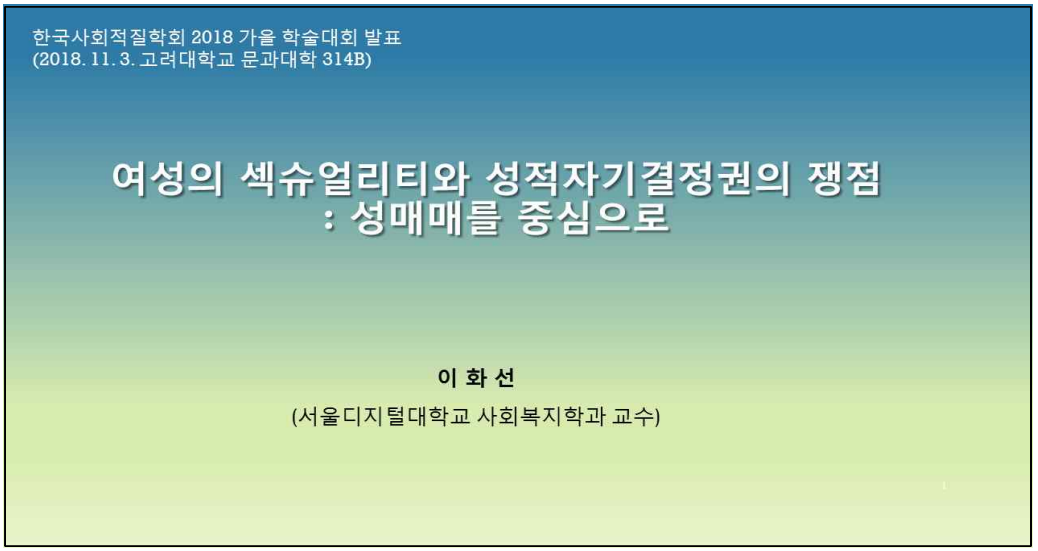
[자유발표]

ser-M을 기반으로 한 아모레퍼시픽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

- 엄재근 ([사]공공협력원)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쟁점

이화선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목 차

1. 서론
2.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성적자기결정권의 개념
   1) 섹슈얼리티와 성적자기결정권의 개념
   2) 성적자기결정권의 쟁점
3. 성매매의 이해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의 관점
   3)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입장
4. 성매매를 통해 본 성적자기결정권의 쟁점
   1) 사회적 조건에 따른 성적자기결정권
   2)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5. 결론: 논의 및 제언

서 론

▪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
- 1960년대의 여성운동은 성별에 따른 차별 철폐와 더불어 여성 자신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성적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자율성과 평등성을 전제로 한 인격적인 권리로써, 섹슈얼리티와 관련되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 성적자기결정권 논의의 쟁점
- 개인의 성적 자율성성과 평등성은 어느 범주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
- 간통죄: 성적자기결정권이 근거가 되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성희롱: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은 주요한 요인이 된다.
- 낙태: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서 론

▪ 우리나라의 성매매 논의
- 2000년 9월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곳에 같혀있던 성매매 종사 여성 5명이 사망하였고 또다시 2002년 1월 군산시 개봉동 성매매 업소 건물의 화재로 성매매 여성 1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 성매매 관련 법 제정
- 성매매 피해자인 여성들의 보호를 위해서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 2004년 2004년 3월 제정되고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04년 9월 시행되었다.

• 성매매 관련 법에 대한 논쟁
- 성매매 여성의 대다수를 인신매매 또는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성매매 관련 법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되고 있다.

섹슈얼리티와 성적자기결정권의 개념

- 섹슈얼리티
  - 유동적이고 다원적이며 광범위하다.
  - 성과 관련된 생각, 성에 대한 사회적 제도와 규범, 성적 지향(성 정체성)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다.
  - 섹슈얼리티가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자기결정권 논의의 쟁점

- 성적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쟁점은 개인의 결정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 혼인빙자간음죄
  - 2002년 합헌 결정
  - 2009년 위헌 결정: 자기가 선택한 성적 행위에 대해 자기가 책임지도록 하였으며, 보호주의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있다.

- 간통죄
  - 간통죄의 형사상 처벌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관점에서 위헌 결정되었다.

성적자기결정권 논의의 쟁점

- 성폭력
  성적합의에 대한 여성주의의 입장: 폭력이 배제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합의가 없는 성행위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

- 자기결정의 손상
  - 여성주의자들은 문화적 압력, 경제적 의존 및 낯선 남성으로부터의 폭력에 대한 여성의 공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기결정의 손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 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조건하에서의 성관계는 위협적이지 않은 남성 친구와의 관계에서조차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성매매의 이해

1. 성매매의 정의

- 성매매(prostitution)
  - 성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받는 거래를 통칭한다.
- 성매매방지법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 여성주의 시각에서는 성매매 현상을 성 상품화로 인하여 인간, 특히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인식한다.
- 성매매여성 권리옹호자들은 '성노동/성노동자'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 성매매를 성적 서비스와 화폐를 교환하는 노동의 한 행위로 받아들인다.

성매매의 이해

2. 성매매 논쟁

-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전통적 견해
  - 정상적인 성욕을 가진 남성들을 유혹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락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 20세기 초· 중반 여성주의
  - 성매매 여성을 '문제여성 ' 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에 처해 있는 여성'으로, '비난의 대상 ' 에서 '연민의 대상 ' 으로 재개념화 된다.
- 1970년대 성매매 논쟁의 본격화
  - 자신의 신체를 상품화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입장,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외된 노동자라는 입장,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가부장적 억압이라는 입장 등 다양한 입장의 논쟁이 시작된다.
- 1980년대 이후
  - 여성주의자들 내부에 반 성노동(anti-sex work), 친 성노동(pre-sex work) 이라는 입장의 차이가 나타난다.

성매매의 이해

3.1. 성매매 관점 : 반성노동적 관점

- 급진주의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된다.
- 성매매
  -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의 극단적 형태, 성적 착취라고 주장한다.
  - 강제적이며 억압적이기 때문에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폭력으로 본다.
  - 여성을 남성의 잠재적 소유물로 인식하게 하므로, 성매매는 여성 전체의 문제이다.
- 자유주의적 차원에서 주창되는 '성노동 ' 이라는 개념과 자발적/강제적 성매매의 구분 및 성매매의 합법화를 반대한다.
- 성매매 유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억압적 현실을 포착하여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기여하였다.
-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남성을 대체한 국가의존적인 법적 해결방식을 추구하는 한계를 갖는다.

성매매의 이해

3.2. 성매매 관점 : 친-성노동 관점

- 성매매여성의 노동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옹호한다.
- 1990년대 이후 '성노동자 권리운동 ' 으로 발전하였다.
- 성매매에 대한 도덕적 낙인을 제거하고 직업으로 인정할 것과 자유롭고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주장한다.
- 일부에서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한다.
- 주류 페미니즘에서 배제되어 온 성매매 여성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 성매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 성매매로 유입되기까지의 폭력과 인건 유린의 현실을 무시하고 여성들의 선택과 권리만 강조하는 한계를 갖는다.
- 상대적으로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여건 속에 있는 서구 여성들의 현실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성매매의 이해

4.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입장

1) 금지주의
   - 국가가 성매매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 성판매자, 성구매자, 중간매개자 모두를 처벌하거나, 성구매자만을 처벌하기도 한다.
   - 한국, 믹국(네바다주 제외), 대만, 스웨덴, 중국 등

2) 승인주의(합법적 규제주의)

   - 국가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관리한다.
   -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징수한다.
   - 성매매 종사여성에 대한 의료감시, 거주제한, 거래 지역통제 등의 규제정책을 실시한다.
   -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헝가리, 뉴질랜드, 멕시코, 호주 빅토리아주 등

성매매의 이해

4.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입장

3) 비규제주의
- 법적으로 성매매 행위 자체를 규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 포주, 알선, 집창촌 영업은 단속한다.
- 국가에 따라 특정 영역(학교, 병원 등), 특정 지역, 특정 유형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 영국, 핀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호주 퀸즈랜드주 등

4) 특징
- 한 국가 내에서도 시기에 따라, 행정부에 따라 정책이 달라진다.
- 입법태도는 다양하나 유엔의「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 합의하여 알선 및 착취행위, 인신매매 등 강제와 가망에 의한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 및 규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 청소년과의 성매매는 금지한다.

성매매를 통해 본 성적자기결정권의 쟁점

1. 사회적 조건에 따른 성적자기결정권 : 성매매 금지의 관점

- '성의 상품화'
  - 성행위는 상품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 성행위는 인간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인격적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특질과 분리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매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 인간 자체를 매매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

- 비자발적 결정
  - 다른 생계 수단에 대한 선택가능성이 없는 성매매 여성이 생계유지방법으로 성매매를 선택하였을 경우의 성매매는 자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여성의 결정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힘에 의해 강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를 통해 본 성적자기결정권의 쟁점

2.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 성매매 합법화의 관점

-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비롯한 일반적 자유행동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한다.
- 착취나 강요됨이 없는 성매매는 다원적 가치관이 존중되는 현대 사회에서 어느 누구의 법익도 침해한 바 없는 부도덕한 행위에 불과하다.
- 처벌의 실효성
  - 규범 자체는 존재하지만 이를 예방하는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 자발적인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헌법 제10조가 천명하고 있는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가운데 성행위의 상대방을 아무런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

결론

- 성적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간통죄 위헌결정, 혼인빙자 간음죄 위헌결정, 부부간 강간죄 인정 등
- 성매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성매매 관련 법이 과연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교묘한 형태의 착취형 성매매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생계유지를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많이 주는 일을 선택하겠다는 개인의 자기결정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문달주(2018). 성매매처벌 특별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인권법연구, 4**, 117~152.
2. 박이은실(2011). "급진적 섹슈얼리티 연구 재/구축을 제안하며", **여성이론, 25**, 65~106.
3. 박종선(2011).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협법적 담론 : 피해자의 승낙을 중심으로", **OUGHTOPIA, 26**(2), 67~95.
4. 이나영(2009).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섹슈얼리티 : 역사와 정치학의 이론화", **경제와 사회, 82**, 10~37.
5. 이덕인(2015).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위헌논란과 쟁점", **형사법연구, 27**(3), 71~95.
6. 윤덕경(2012). "형사업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이화젠더법학, 4**(1), 1~35.
7. 정재훈(2013). "독일 성매매 합법화 이후 실태와 정책 효과", **이화젠더법학, 5**(1), 1~21.

한국사회적질학회 2018년 가을 학술대회(2018.11.03)
여성·가족 정책의 이슈를 통해 본 사회적 질
제1부 학술대회 **주제발표_ 토론 01**

[토론문]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쟁점」에 대한 토론

홍세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1.

'성적 자기결정권' 은 여성주의적 주체성의 가장 강력한 요청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반성폭력운동의 일관된 명제이었으며, 1990년대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 거치면서 법학적 논의의 영향 속에서 대안적 정의로 부각되었던 주제이다.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 은 대단히 논쟁적인 면을 지니고 있어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법학자들 간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다. 발표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범주를 설명한 후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성매매와 성적자기결정권 이슈를 사례로 다루고 있다. 토론문에서도 발표자의 논의 순서에 따라 섹슈얼리티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논의들을 검토한 후 토론 주제를 도출해보려 한다.

2.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되는 포괄적 기본권이다. 이러한 기본권을 구체화하여 성적 측면에서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보호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자기결정권행사에 제약이 있는 자)에 대한 보호이다. 전자의 경우는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형법은 개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지만 폭행·협박이 개입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는 형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약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경한 차원

의 유형력 행사가 있는 경우에서부터 개입이 이루어진다(윤덕경, 2012).

그러나 문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 및 그 권리의 보호를 실천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수반되고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은 그것이 실천되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로,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자율성의 문제이다. 자기결정권은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을 필요로 하므로 자율성을 기초로 한다. '자율성' 이란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성질이나 특성' 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결정권은 자기의 선택에 대한 자기의 책임 부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기책임의 원리가 지배하게 된다(천명주, 2016). 그러나 특히 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자기결정을 판단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며,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이분화하는 것에도 문제가 따를 수 있다.

둘째로, 성과 관련된 자기결정과 자율성 판단의 어려움은 섹슈얼리티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섹슈얼리티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면서 구성되는 것으로 성적 욕망, 실천, 정체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섹슈얼리티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실천되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그것이 작동하는 다양한 권력관계를 드러낸다. 여성의 수동성과 남성의 능동성이라는 성적 태도와 실천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에서의 여성은 성적 주체로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모호한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사법부가 범죄로 정의하는 성폭행과 여성들이 범죄로 느끼는 성폭행 사이에 괴리를 발생시킨다.

셋째로, 섹슈얼리티 담론이 가지고 있는 젠더권력이 자율성의 문제와 결합되었을 때의 현실적 결과들에 관한 문제이다. 성적 욕망을 위한 자유와 책임이라는 면에서 볼 때, 젠더권력의 영향으로 자유와 책임이 여성과 남성에 불평등하게 지워져있다. 예를 들어 임신과 출산, 낙태 등의 문제는 성적 쾌락이라는 자유는 남녀 모두 선택하였으나 그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 남겨진다. 즉, 성적 자기결정이 젠더권력의 영향으로 왜곡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3.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볼 때 성구매자와 성판매자에 대한 규율 역시 논란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이다. 전통적인 인권담론에서조차 이 주제는 뜨거운 담론으로 여겨진다. 각국은 성매매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어떠한 모델에 의거한다 하여도 문제점은 상존할 것으로 보여진다. 성매매 대책을 최선, 차선, 최하책으로 나누어 비교하면서 최선이 안되면 적어도 열악한 상태에는 빠지지 않도록 차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어려움을 잘 드러내고 있어 아래에 소개한다(고시면, 2014).

〈표〉 성매매 대책으로 최선, 차선, 최하책의 비교

구분	여성	남성	비고
최상책	매매근절	매수근절	역사상 근절불가
차선책	성병(의료보험) → 무료 질병치료 실직(실업보험) → 다른 직업알선 노후(연금보험) → 노후생활보장 인신매매근절 ← 국제 연대 퇴치 강압착취근절 ← 경찰활동 강화	?	실질인권개선
최하책	처벌만능	처벌만능	법치강조

❑ 토론할 문제

1)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에 섹슈얼리티 담론이 성중립성을 가장하여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자율성에 기반을 둔 성적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2)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성에 대해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이야기하는 등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문화적인 재현과 담화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여 성매매의 합법화 등 성매매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는가?

참고자료

고시면(2014). “ ‘일부 연예인 성매매사건 등’ 과 관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으로서 탈윤리적·합법적 시각인 독일 등과 성적 일탈로서 반윤리적·불법적 시각인 한국”, **사법행정, 55**(5), 2-8.

윤덕경(2012).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이화젠더법학, 4**(1), 1-35.

천명주(2016). “ ‘자율성 중심의 성윤리’ 에서 ‘관계성에 입각한 행위자 중심의 성윤리’ 로: 성윤리 교육에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7**(6), 245-262.

일-가족 양립지원의 정책담론 및 정책수단을 통해 본 가족친화적 사회정책

박보영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일-가족 양립지원의 정책담론과 정책수단을 통해 본 가족친화적 사회정책

2018.11.03. 고려대 문과대학 314B
한국사회적질학회 2018 가을 학술대회
박보영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이 발표문은 초고 형태로 가급적 인용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목차

1.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은 왜 출현하였나?
2. 일-가족 양립지원의 정책담론
3. 일-가족 양립지원의 정책수단
4. 우리의 일-가족 양립지원의 현실
5. 가족친화적 사회정책과 사회적 질(Social Quality)

1.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은 왜 출현하였나? 3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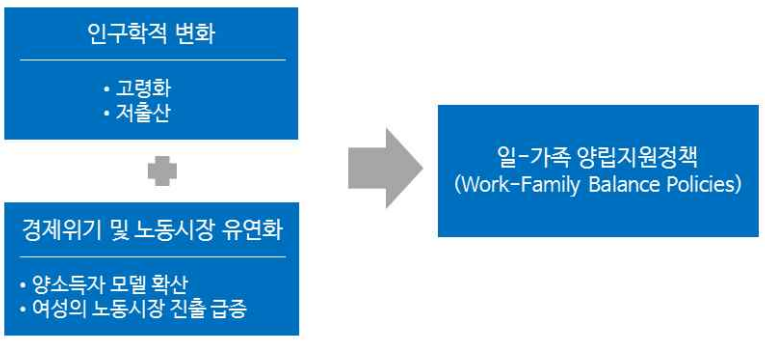
1.1 들어가기에 앞서 : 김성태 발언 사용법

여론의 환기를 기점으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관련정책을 충실히 검토·점검·실행해야 함."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18년 9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였다. 그는 이 연설에서 이른바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재원 330조원을 대신 투입하여 출산장려금과 육아수당 등 아이 1명당 20년간 1억원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9172200005#csidx19998576c5d2846a2516bb5fbeae09b
(검색 : 2018. 10. 25. 00:35)

1.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은 왜 출현하였나? 4 / 14

1.2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배경



2. 일-가족 양립지원의 정책담론 5 / 14

□ 일-가족 양립지원의 주요 담론(Discourses)

- 양성평등(Gender Equality)론
- 여성인력 활성화론 : 여성노동력 동원책
- 사회투자론 : 아동중심주의(Child-centered Approach)
- 출산율 제고론 : 저출산 대책

3. 일-가족 양립지원의 정책수단 6 / 14

□ 일-가족 양립지원의 주요 정책수단 : 서구 국가

- 정책수단 01_ 휴가제도

1) 모성휴가, 부모휴가, 육아휴가

2) 부성휴가,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부모휴가의 아버지 할당제)

- 정책수단 02_ 유연근무 ☞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전제되어 있어야 함.

1) 시간제근무 : 파트타임 노동자(part-time worker)

2) 근무시간의 유연화 : 풀타임 노동자(full-time worker)

(1) 탄력근무제

(2) 압축근무제

(3) 원격근무제

3. 일-가족 양립지원의 정책수단 7 / 14

□ 일-가족 양립지원의 주요 정책수단 : 서구 국가

- 정책수단 03_ 재정적 지원

-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조세제도

예) 종합과세 → 개인과세

- 정책수단 04_ 아동보육서비스 ☞ 공공부문(국·공립 기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원칙임.

1) 취학전 아동 (3~6세) : 어린이집 및 유치원

2) 영·유아 (0~2세) : 탁아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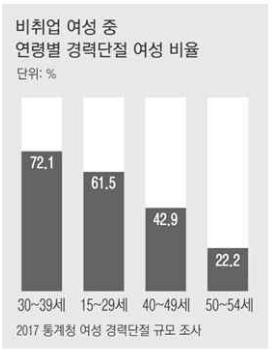
4. 우리의 일-가족 양립지원의 현실 8 / 14

4.1 기업 규모별 자녀 관련 '휴가' 및 '유연근로' 도입률 (단위: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9172200005
(검색 : 2018. 10. 25. 13:34)

4. 우리의 일-가족 양립지원의 현실 9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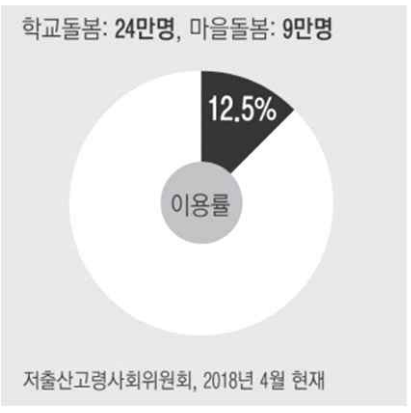
4.2 연도별·연령별 '경력단절 여성' 비율 (단위: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9172200005 (검색 : 2018. 10. 25. 13:35)

4. 우리의 일-가족 양립지원의 현실 10 / 14

4.3 '초등돌봄' 이용 학생수 (단위: 명,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9172200005 (검색 : 2018. 10. 25. 13:36)

5. 가족친화적 사회정책과 사회적 질(Social Quality) 11 / 14

5.1 가족친화적 사회정책의 중요성 : 사회적 질 접근

- **가족친화적 사회정책의 대표격**인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목적**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 궁극적으로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그런 점에서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을 '사회적 질'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질 접근(Social Quality Approach)? :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Social Context
  - 사회의 질은 **인본주의적인 사회발전 방식**(*경제적 가치에 함몰된 사회발전을 넘어 개인의 잠재력과 자아실현을 돕는)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시민을 아우를 때 높아짐. 이를 위해 **사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일-가족 양립지원정책(가족친화적 사회정책)은 그런 사회시스템의 구축을 견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임.

5. 가족친화적 사회정책과 사회적 질(Social Quality) 12 / 14

5.2 일-가족 양립지원을 통한 가족친화적 사회정책의 발전

- 가족친화적 사회정책이 우리사회의 질을 높인다는 데는 이견이 없음. 그렇다면 일-가족 양립지원 같은 가족친화적 사회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
  - 정책수단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이미 일-가족 양립지원을 시행하고 있음(*2006년부터 4년 주기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즉 관련 정책이 없어서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아님. **"있는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임.
  - 무턱대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 들기보다는, **제대로 된 정책담론에 기초한 '끈질긴 보완'과 '담대한 집행'이 요구됨**. 그렇지 않으면 (여·야의 구분이 무의미한) 가족친화적 사회정책의 성격상 포퓰리즘의 전시장이 될 우려가 큼. 즉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관련 정책수단을 전시적으로 도입하는 데 그칠 공산이 큼.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유연근무 시행률, 초등돌봄 충족률 등의 **지표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제도들을 모니터링·보완**할 필요가 있음.

5.2 일-가족 양립지원을 통한 가족친화적 사회정책의 발전

- 사회의 질이 높은 복지선진국들의 경우, **수십년에 걸쳐 끊임 없이** 관련 제도들을 **모니터링**하고 **보완**하여 오늘날과 같은 가족친화적 사회정책을 구축하고 있음.
- 요컨대, **제도의 착근과 성숙**이 필요함. 더불어 **경제력에 걸맞은 예산구조·재정지출**이 뒷받침 되어야 함(즉 복지예산의 과감한 증액).

감사합니다

[토론문]

「일-가족 양립지원의 정책담론 및 정책수단」에 대한 토론

박범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2000년대 이후 OECD 국가들과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사회를 묘사하는 유의미한 통계지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장시간인 나라,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인 나라, 세계에서 노인자살률이 1위인 나라, OECD 국가 중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꼴찌인 나라, OECD 국가 중 청소년의 행복도가 꼴찌인 나라.

즉 위 지표들은 한국사회의 '삶의 질' 수준이 어떠한가에 대해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년 전 어떤 정치인의 팬 카페에서 논의되어 슬로건화 된 '저녁이 있는 삶' 도 시민들에게 조용히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다 열풍으로 전환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외 현재까지 뉴스나 기사에서 쏟아내는 다수의 내용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열악한 삶의 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사회에서도 '삶의 질'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성찰하며 각 계층과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가 모아져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발제자께서 논의해주신 〈일-가족양립지원의 정책담론과 수단〉은 의미가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된 것은 시민들의 생계와 연관된 일과 근본적인 돌봄과 정서의 기반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발제에 대한 토론의 흐름은 발제문의 의미와 질의 2개로 구성할까 합니다.

❑ 발제문의 함의

발제문의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가족 양립에 관한 제도적 논의, 법률적 논의, 정책적 논의는 2000년 대 이후 여러 유관기관 및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습니다. 간혹 이 논의의 배경이 되는 이론과 정책을 매칭 시켜 학술적으로 발전시킨 케이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제문은 기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일-가족 양립에 관한 정책의 출현배경과 담론들을 정리했습니다. 젠더평등, 아동중심주의, 저출산, 양소득자 모델,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정리해 "왜 일-가족 양립에 관한 정책으로 수렴 되었는가?" 에 대한 정리를 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봅니다.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젠더평등담론으로, 사회적 투자 논의 진영에서는 아동중심주의로, 주류 사회복지 정책적 관점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구조적 입장으로 접근합니다. 각 진영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발제문에 담아냈기에 전체적으로 일-가족 양립에 관한 정책으로 흘러가는 큰 줄기의 '흐름' 도 볼 수 있다는 것이 본 발제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담론의 구현체로서의 일-가족 양립제도가 서구 및 한국에서 금전 / 휴가 / 현물서비스의 형태로 정착되는 순서로 기술한 것도 논리적으로 쉽게 수긍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용의 유연화는 사회학적으로 다소 '부정적' 으로 사용되는데 이 제도 안에서 긍정적 논법으로 사용되는 것도 신선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제문에서 한국 상황의 제도정착이나 현실 문제를 다뤄서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한 고민거리를 던져 준 것도 의미가 있다 봅니다.

❑ 발제문에 대한 두 개의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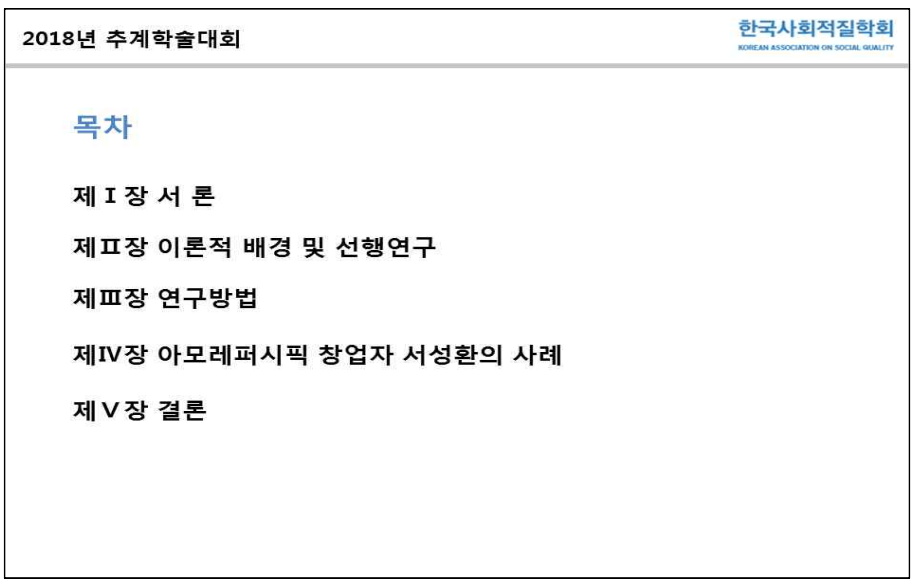
본 발제문을 읽은 상태에서 질문 두 개를 제시하려 합니다.

첫째, 네덜란드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가들이 일-가정 정책에 관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가정 정책과 관련된 제도들 가령 육아휴직, 아동보육서비스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담론-정책의 1:1 틀이 아니라 유독 한국에서는 정책을 둘러싼 맥락이 '복잡' 하기 때문이라 봅니다. 소위 자본주의적 세상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나 습속이 크다 봅니다. 머릿속의 주판알을 튕겨 손해가 날 것 같으면 가령 합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실제적 해고조치를 내린다거나 조직문화가 이런 제도를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풀어낼 해법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일-가족 양립에 관한 제도에 있어서 '네이밍' 문제입니다. 제가 몇 개의 선행연구 등을 찾아보니 원래는 일-삶의 양립에 관한 제도에서 삶을 가족으로 대치시켜 만든 것이 현재의 제도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가족이라는 영역은 여성과 밀착된 곳입니다. 일-삶의 양립에 관한 제도라고 하면 여성 뿐 아니라 노동하는 개개인의 존재에 대한 정책이 되는데, 일-가족 제도로 전환되면서 근로하는 여성에 대한 정책으로 포커스가 이동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ser-M을 기반으로 한 아모레퍼시픽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

엄재근
(사단법인 공공협력원 학술위원장)



2018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 일러두기

본 연구는 **엄재근, 조규연, 탁진규(2017), "ser-M 모형 분석을 이용한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 국내 9개 기업의 창업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영교육학회, 32(6), pp. 431-451** 의 논문으로부터 발전시켜서 진행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2018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제 I 장 서 론

[연구목적]
본 연구는 ser-M 모형 분석을 통한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로서 단면적 분석에서 융합적, 동태적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함

[연구방법]
ser-M 모형을 기반으로 주체, 환경, 자원, 메커니즘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체인 창업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어떻게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는지를 살펴봄

[연구결과]
한국 화장품을 이끌어 온 아모레퍼시픽의 창업자 서성환의 사례를 통하여 아모레퍼시픽의 성공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분석함

[연구의 시사점]
아모레퍼시픽이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는 창업자 서성환이라는 주체를 통하여, 국내외 환경과 아모레퍼시픽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작동됨

2018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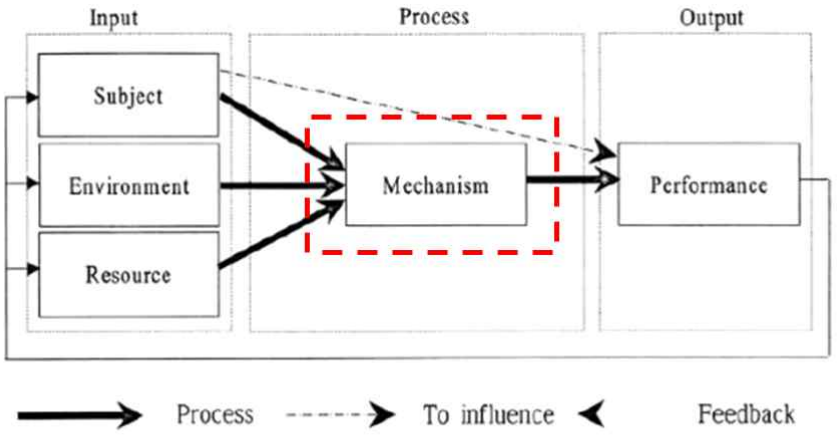
제 II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반도체 산업의 중심점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겨 가는 과정을 ser-M, 즉 주체, 환경, 자원 그리고 메커니즘으로 설명(조동성,1995)
- 최근 주체, 환경, 자원요인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동태적 경쟁우위 확보의 전략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관점의 연구가 진행(구자원, 이윤철, 2007; 조동성, 정진섭, 2004; 조동성, 이윤철, 박재찬, 2001)
- 기존의 통합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국제화를 설명하는 특정 주제에 국한되어 있거나,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이론적 연구가 대부분이고, 실증연구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주체, 환경, 자원 요인과 메커니즘 요인을 통합적인 시간에 설명(구자원, 이윤철, 2009)
- 전력 산업의 신제품 개발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메커니즘적 관점을 활용한 사례연구(김용언, 신철호, 2009)
- 기업의 채용메커니즘에 대한 미시적 사례연구(이재영, 엄재근, 2016)
- 기업가 정신에 대하여 9개 기업의 사례를 분석(엄재근, 조규연, 탁진규, 2017)
- 조선 태종의 리더십과 경영전략을 ser-M으로 분석(여현철, 엄재근, 2018)

2018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제 III 장 연구방법

'ser-M 기반 메커니즘'으로 기업가정신을 접근



참조: 조동성, 2014

2018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 **창조형 메커니즘(SER/SRE)**
주체가 선도적으로 환경과 자원을 창조하는 mechanism

기존의 주어진 것과 무관하게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무에서 유의 창조.
즉, 기존의 것을 새로이 만든다는 의미의 혁신과는 다름

○ **혁신형 메커니즘(RSE/ESR)**
주어진 환경이나 자원의 기반 위에 주체가 자원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제한적 mechanism

무에서 유의 창출이 창조형 mechanism 에 해당한다면 과거에서 미래으로의 쇄신이 제한적 혁신형 mechanism에 해당

○ **적응형 메커니즘(ERS/RES)**
주어진 환경과 자원의 기반 위에 주체가 수동적으로 상황에 맞추는 mechanism

창조형 mechanism이 무에서 유를 창조, 혁신형 mechanism이 구에서 신으로의 혁신이라면 적응형 mechanism은 구의 유지 및 활용을 의미.
혁신형 mechanism은 기존의 환경이나 자원을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 시키는 반면 적응형 mechanism은 자원이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활용한다.

참조: 조동성, 2014

2018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제 IV 장 아모레퍼시픽 창업자 서성환의 사례

4.1 기업 소개

아모레퍼식픽은 화장품, 생활용품, 건강식품, 녹차 등을 생산, 판매하는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이다. 아모레퍼식픽의 시작은 1945년 9월 5일 창업주 서성환이 태평양화학공업사를 창업하므로 시작되었다. 태평양은 한국 최초의 화장품 회사이고, 화장품 방문 판매제도를 도입해 화장품 유통에 혁신을 만들었다.

1932년 서성환의 어머니인 윤독정 여사는 화장품 제조, 판매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를 기반으로 일을 배우고, 자본을 축적한 서성환은 1945년 태평양화학공업사를 창업할 수 있었고, 1948년 브랜드 제품인 메로디크림을 발매하였다. 당시 브랜드 개념이 없던 시정에 한국 최초로 상표를 붙인 제품이었다. 공급자 시장이어서 만들기만 하면 팔리던 시절에 브랜드 개념을 도입하여,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보인 것은 당시에는 혁신적이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6년 ㈜태평양을 인적분할하여 ㈜아모레퍼시픽을 신설회사로 세웠다. 2011년 태평양의 사명 자체를 아모레퍼시픽그룹으로 바꿨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국내 자회사는 2018년 6월 현재 (주)아모레퍼시픽, (주)이니스프리, (주)에뛰드, (주)아모스프로페셔널, (주)에스쁘아, (주)에스트라, (주)퍼시픽글라스, (주)퍼시픽패키지, 농업회사법인 (주)오설록농장, (주)코스비전 등 총 10개사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018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4.1 기업 소개

CATEGORY	2015	2016	2017
매출액	5,661.2	6,697.6	6,029.1
매출총이익	4,246.2	5,056.7	4,414.9
영업이익	913.6	1,082.8	731.5
경상이익	921.6	1,088.3	698.3
당기순이익	673.9	811.5	489.5

AMOREPACIFIC Sulwhasoo LANEIGE
Mamonde innisfree ETUDE HOUSE
LIRIKOS VERITE LIRIKOS
HERA IOPE primera
HANYUL espoir ODYSSEY
make on ANNICK GOUTAL VITALBEAUTIE
AESTURA ARITAUM 메디안 MEDIAN
Pleasia OSULLOC
FRESH POP amos

출처: 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

2018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4.2 ser-M의 구성요소

" 주체 (subject) : 구체적인 요소로는 사고, 리더십, 그리고 경험

사고 : 서성환의 도전정신과 서양화장품에 대한 연구심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

리더십 : 사업적 감각, 서성환의 개성상인 리더십

경험: 어머니 사업을 통한 경험, 서성환의 화장품 영업, 운송에 대한 초기 경험

황해도 개풍군 광덕면 중연리 새터마을의 부농 출신
초기 어머니의 사업을 도와 개성에서 활동

2018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4.2 ser-M의 구성요소

" 환경(environment) : 구체적인 요소로는 시대, 정책, 그리고 시장

시대 : 일제시대/육이오전쟁/경제발전

정책 : 소비재, 경공업 육성

시장: 화장품 시장의 급속한 성장, 해외 화장품과의 경쟁

" 자원(resources) : 구체적인 요소로는 핵심자원, 인적자원, 축적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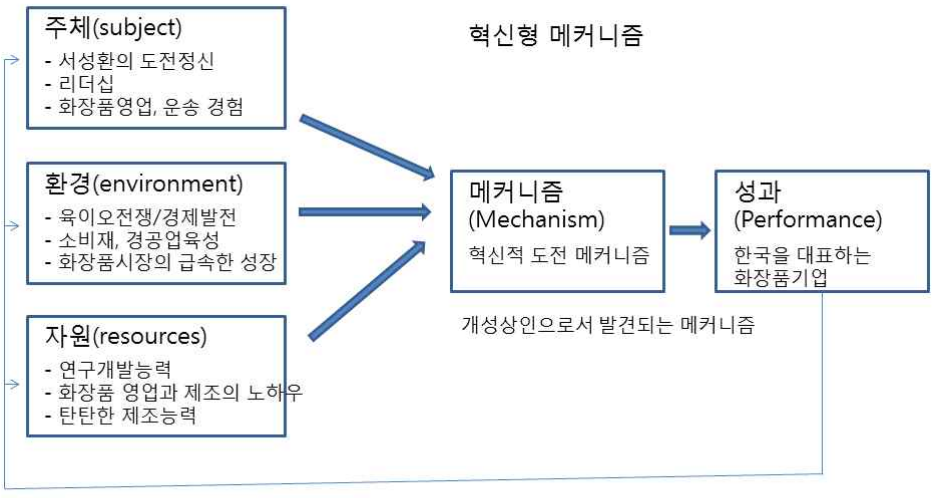
핵심자원 : 다른 경쟁사보다 빠른 화장품 개발 - 연구소

인적자원: 화장품 영업과 제조의 노하우가 있는 직원 확보

축적자원 : 탄탄한 제조능력 – 동백기름의 출발

2018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4.3 ser-M의 메커니즘 창출



제 V 장 결론

5.1 연구 요약 및 시사점

▶ 이 논문의 결과들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고, 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기업들은 기업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경쟁 속에서 다른 기업들보다 한발자국이라도 나아가기 위해서 기업가정신을 배워야 한다

▶ 이 논문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창업자 서성환의 혁신형 메커니즘으로서 개성상인 메커니즘의 사례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신용과 연구개발 정신을 살필 수 있다

▶ 이 논문의 ser-M 프레임을 통해서 유사한 환경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단일사례 연구의 한계

▶ ser-M 기반 메커니즘의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 연구가 필요

▶ 특히 창조형, 혁신형, 적응형 메커니즘에 대한 비교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

Reference

구자원, 신철호, 이동환(2012) "메커니즘요인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산업교육연구 제26권 제4호 pp.355-375

구자원, 이윤철(2007) "기업성장단계 연구에 있어 변수의 사용빈도 및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종단적 연구: ser-M Framwork을 활용한 생산성요인 도출을 중심으로", 생산성논집, 제21권, pp.131-171.

김용언, 신철호(2009) 전력산업에서의 대·중소기업간 협력에 의한 신제품공동개발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상품학연구 제27권 제1호 pp.63-80

박재찬, 조동성, 이윤철(2001) "주체, 환경, IT자원의 상호작용이 e-Business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13권, pp295-324

류동희, 이종구, 김홍유(2012) "한국 대기업의 채용패턴 변천과정과 시대별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경영사학 제27집 제4호 통권64호

엄재근(2018) "유한양행 사례를 통한 사회적 책임정신에 관한 연구", 사회적질연구

엄재근, 여현철(2018) "조선 초기 태종의 경영 리더십 분석: ser-M 모델 분석을 중심으로", 경영사학

엄재근, 이재영(2016) "Analysis of Corporate Recruitment through ser-M Model: Case Study of GS Caltex", 경영컨설팅연구

엄재근, 조규연, 탁진규(2017), "ser-M 모형 분석을 이용한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 국내 9개 기업의 창업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영교육학회, 32(6), pp. 431-451.

이동현 (1996) 기업전략 및 산업정책에 대한 SERM 패러다임의 적용: 한, 미, 일 국제비교연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학위 논문.

이홍배(1997) "SER-M 모델에 의한 대구경북 섬유산업군집의 경쟁력분석", 경영경제연구, 제16권, 부산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 pp.67-85.

정진섭, 조동성(2006) "기업 글로벌 성자의 메커니즘적 접근: 균형, 조정, 학습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전략경영연구, 제9권 pp.1-30

조동성(2014), 메커니즘기반관점: 통합적 경영을 위한 새로운 전략 패러다임서울경제경영출판사.

조동성(2006) 서울대 메커니즘 연구회, 제4의 전략패러다임 M 경영, 한스미디어.

조동성, 이윤철, 박재찬(2001) "인터넷 기업의 e-Mechanism에 관한 연구", 전략경영연구, 제4권, pp1-21.

한미자(2015) '나는 다시 태어나도 화장품이다.' RHK

Barrick M. r., Stewart G. L., Neubert M. J., and Mount M. K.(1988), "Relating Member Ability and Personality to Work-team and Team Effectiven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 261-272.

Becker, G. S. (1964), Human Capatal, New York : Coulumbia University Press.

Cho, D. S., & Lee, D. H.(1998). A new paradigm in strategy theory: ser-M. Monash MT Eliza Business Review, 1(2): 82-98.

Costa P. T. Jr. and McCrae R. R.(1988), "From Catalog to Classification: Murray's Needs and the Five-factor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5, 258-265

Coase, R. H.(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4, 386-405

David P. Lepak, Scott A. Snell (1999) The Human Resource Architecture: Toward a Theory of Human Capital Allocation and Development, ACAD MANAGE REV January 1, vol. 24 no. 1 31-48

Holland, John L.(1959) A theory of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6(1), 35-45.

2018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Reference

Edwards, J. R.(2008), Person–Environment Fit in Organizations: An Assessment of Theoretical Progress,, The Academy of Management Annals ,Volume 2, Issue 1, 167-230
Flamholtz, E. and Lacey, J.(1981), Personnel Management: Human Capital Theory and Human Resource Accounting, Los Angeles: Institute of Indusrial Relations, UCLA.
Iddekinge, Putka, Campbell(2011) "Reconsidering Vocational Interest for personal selection"
Klein, B., Crawford, R., Alchian, A(1978), "Vertical Integration, Appropriable Rents and the Competitive Contracting Proces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1, 297-326
Schmidt F. L. and Hunter J. E.(1998), "The Validity and Utility of Selection Methods in Personnel Psychology: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 of 85 Years of Research Findings," Psychological Bulletin, 124, 262-274.
S Snell, GW Bohlander(2010) Principle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네이버사전, 2018년 10월 11일
아시아 투데이 2015년 1월 22일

[토론문]

「ser-M을 통해 본 아모레퍼시픽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토론

양윤모
(극동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논문의 의의

'ser-M' 모형을 이용한 아모레퍼시픽 창업자 서성환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분석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떤 한 기업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분석하는 작업은 기업가의 일생과 해당 기업의 전반적인 역사를 함께 다루는 작업이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해당 기업만의 독특한 기업문화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이를 밝히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 개략적이지만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기업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토론 및 질문 거리

발표를 듣는 과정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아모레퍼시픽 창업자 서성환의 사례를 'ser-M'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M에 해당하는 유형을 '혁신형 메커니즘'으로 분류하면서 '개성상인으로서 발견되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개성상인의 전반적인 특징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서성환의 경우 어떠한 점을 보여주고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아모레퍼시픽' 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화장품제조·판매에서 출발하여 다각도로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다른 기업들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합니다. 아모레태평양 그룹의 경우 녹차를 대중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 '설록차' 브랜드 중심의 식품(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사업에서 녹차분야로 확장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ser-M' 모형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최근 일부 기업의 오너(owner) 일가들에 의한 '갑질' 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갑질' 행위들을 'ser-M' 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갑질' 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표에서 제시하신 '창조형 메커니즘' , '혁신형 메커니즘' , '적응형 메커니즘' 중 어떠한 메커니즘의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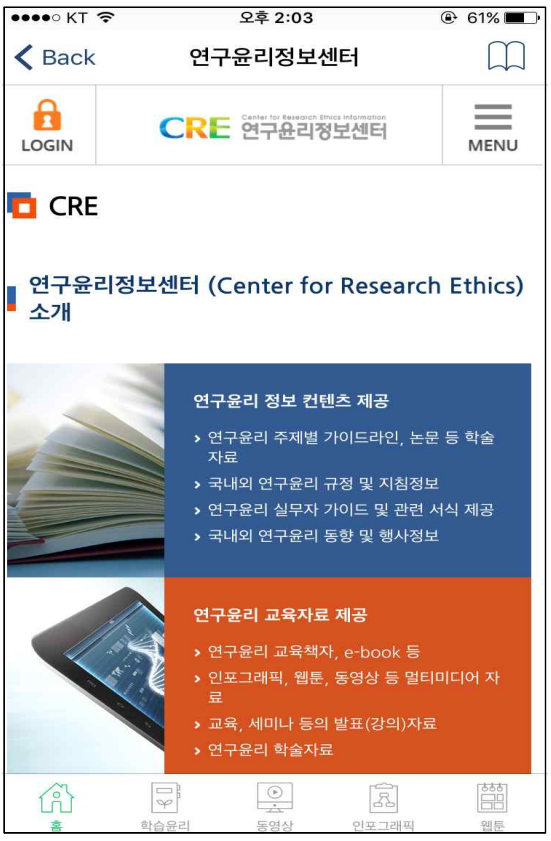
제2부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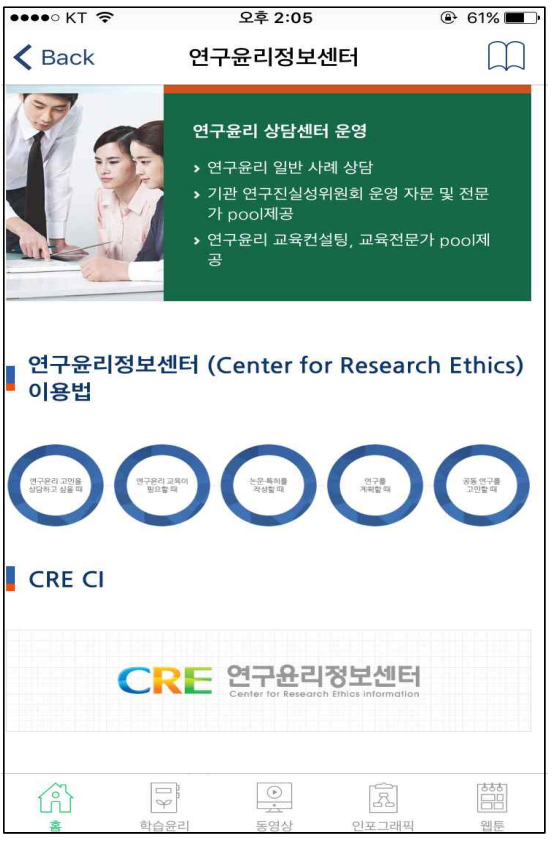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WORKSHOP)

한국사회적질학회 2018년 가을 학술대회(2018.11.03)
여성·가족 정책의 이슈를 통해 본 사회적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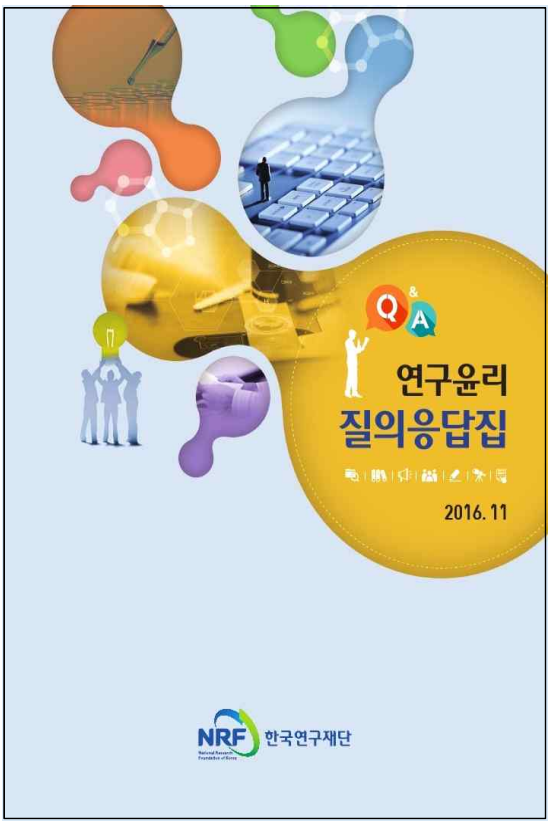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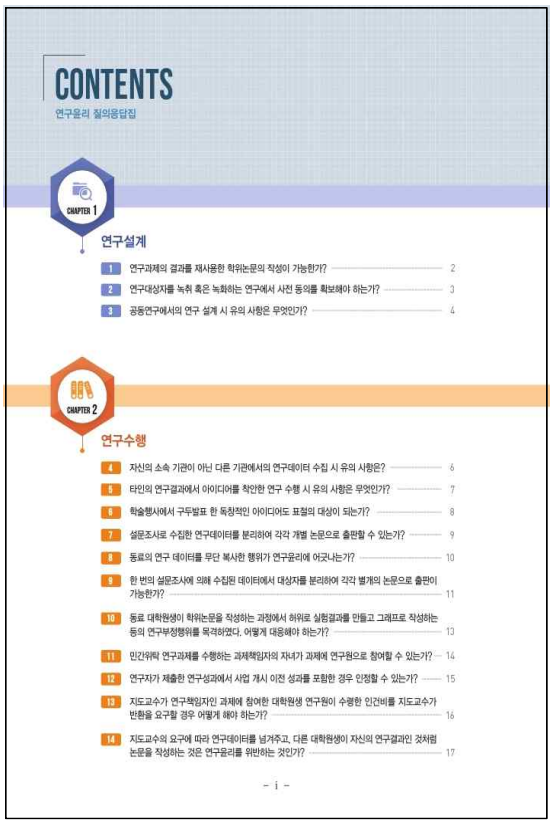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안내 및 앱(App) 소개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안내 및 자료 배포 (1)





CONTENTS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CHAPTER 1

연구설계

1 연구과제의 결과를 재사용한 학위논문의 작성이 가능한가? 2
2 연구대상자를 녹취 혹은 녹화하는 연구에서 사전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가? 3
3 공동연구에서의 연구 설계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4

CHAPTER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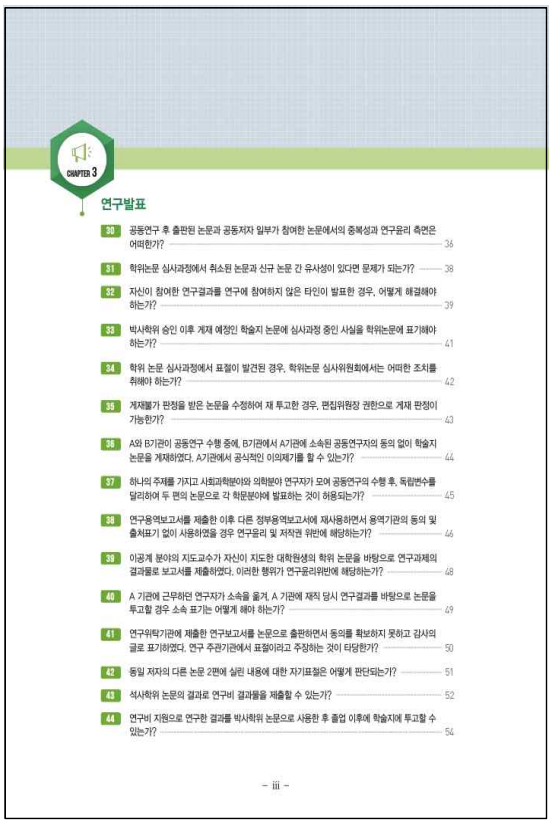
연구수행

4 자신의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의 연구데이터 수집 시 유의 사항은? 6
5 타인의 연구결과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연구 수행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7
6 학술행사에서 구두발표 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표절의 대상이 되는가? 8
7 설문조사로 수집한 연구데이터를 분리하여 각각 개별 논문으로 출판할 수 있는가? 9
8 동료의 연구 데이터를 무단 복사한 행위가 연구윤리에 어긋나는가? 10
9 한 번의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에서 대상자를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논문으로 출판이 가능한가? 11
10 동료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실험결과를 만들고 그래프로 작성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목격하였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3
11 민간위탁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제책임자의 자녀가 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14
12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성과에서 사업 개시 이전 성과를 포함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가? 15
13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연구원이 수령한 인건비를 지도교수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16
14 지도교수의 요구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넘겨주고, 다른 대학원생이 자신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것인가? 17

한국사회적질학회 2018년 가을 학술대회(2018.11.03)
여성·가족 정책의 이슈를 통해 본 사회적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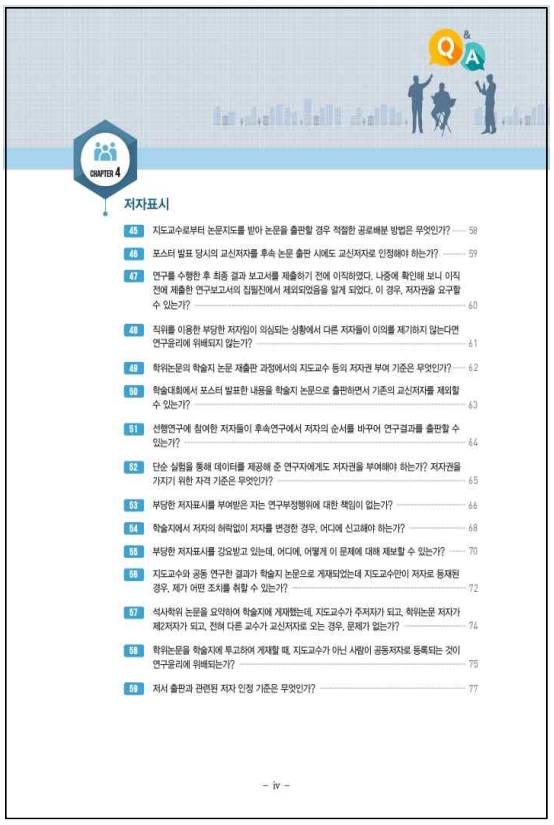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안내 및 자료 배포 (2)



CHAPTER 3

연구발표

30 공동연구 후 출판된 논문과 공동저자 일부가 참여한 논문에서의 중복성과 연구윤리 측면은 어떠한가? 36
31 학위논문 심사과정에서 취소된 논문과 신규 논문 간 유사성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가? 38
32 자신이 참여한 연구결과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이 발표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39
33 박사학위 승인 이후 게재 예정인 학술지 논문에 심사과정 중인 사실을 학위논문에 표기해야 하는가? 41
34 학위 논문 심사과정에서 표절이 발견된 경우,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42
35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수정하여 재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 권한으로 게재 판정이 가능한가? 43
36 A와 B기관이 공동연구 수행 중에, B기관에서 A기관에 소속된 공동연구자의 동의 없이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였다. A기관에서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가? 44
37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사회과학분야와 의학분야 연구자가 모여 공동연구의 수행 후, 독립변수를 달리하여 두 편의 논문으로 각 학문분야에 발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45
38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다른 정부용역보고서에 재사용하면서 용역기관의 동의 및 출처표기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연구윤리 및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가? 46
39 이공계 분야의 지도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하는가? 48
40 A 기관에 근무하던 연구자가 소속을 옮겨, A 기관에 재직 당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 소속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49
41 연구위탁기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감사의 글로 표기하였다. 연구 주관기관에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50
42 동일 저자의 다른 논문 2편에 실린 내용에 대한 자기표절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51
43 석사학위 논문의 결과로 연구비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가? 52
44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한 결과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사용한 후 졸업 이후에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가?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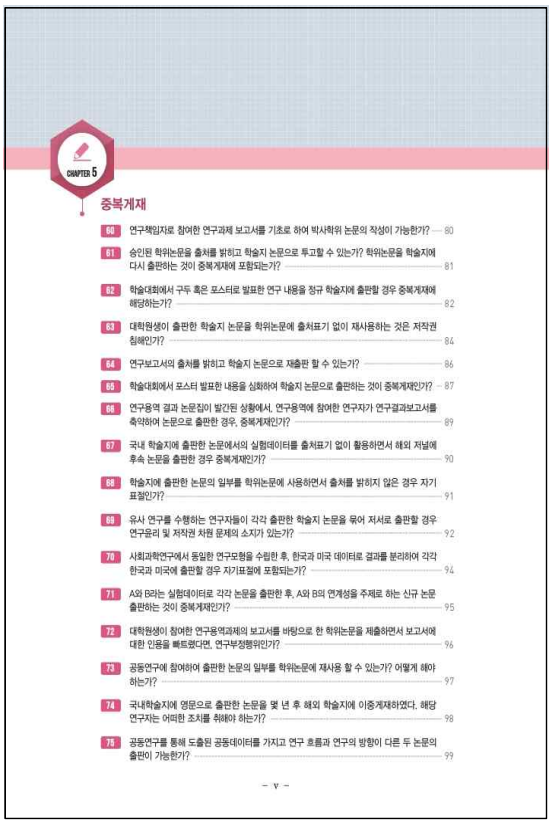
CHAPTER 4

저자표시

45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아 논문을 출판할 경우 적절한 공로배분 방법은 무엇인가? 58
46 포스터 발표 당시의 교신저자를 후속 논문 출판 시에도 교신저자로 인정해야 하는가? 59
47 연구를 수행한 후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직하였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직 전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집필진에서 제외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저자권을 요구할 수 있는가? 60
48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저자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른 저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가? 61
49 학위논문의 학술지 논문 재출판 과정에서의 지도교수 등의 저자권 부여 기준은 무엇인가? 62
50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기존의 교신저자를 제외할 수 있는가? 63
51 선행연구에 참여한 저자들이 후속연구에서 저자의 순서를 바꾸어 연구결과를 출판할 수 있는가? 64
52 단순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해 준 연구자에게도 저자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저자권을 가지기 위한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 65
53 부당한 저자표시를 부여받은 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66
54 학술지에서 저자의 허락없이 저자를 변경한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68
55 부당한 저자표시를 강요받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가? 70
56 지도교수와 공동 연구한 결과가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되었는데 지도교수만이 저자로 등재된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72
57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하여 학술지에 게재했는데, 지도교수가 주저자가 되고, 학위논문 저자가 제2저자가 되고, 전혀 다른 교수가 교신저자로 오는 경우, 문제가 없는가? 74
58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할 때, 지도교수가 아닌 사람이 공동저자로 등록되는 것이 연구윤리에 위배되는가? 75
59 저서 출판과 관련된 저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 77

한국사회적질학회 2018년 가을 학술대회(2018.11.03)
여성·가족 정책의 이슈를 통해 본 사회적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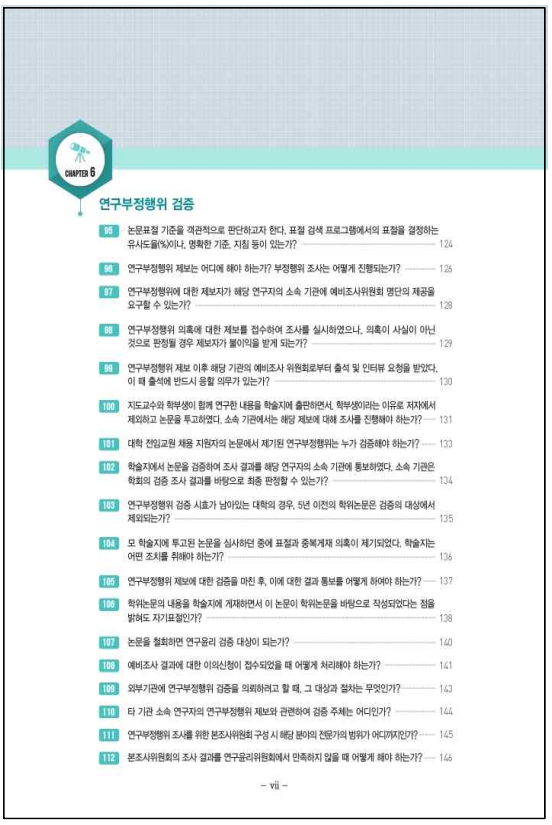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안내 및 자료 배포 (3)



CHAPTER 5

중복게재

60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연구과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박사학위 논문의 작성이 가능한가? — 80
61 승인된 학위논문을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포함되는가? — 81
62 학술대회에서 구두 혹은 포스터로 발표한 연구 내용을 정규 학술지에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 82
63 대학원생이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에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 84
64 연구보고서의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재출판 할 수 있는가? — 86
65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심화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인가? — 87
66 연구용역 결과 논문집이 발간된 상황에서,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자가 연구결과보고서를 축약하여 논문으로 출판한 경우, 중복게재인가? — 89
67 국내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에서의 실험데이터를 출처표기 없이 활용하면서 해외 저널에 후속 논문을 출판한 경우 중복게재인가? — 90
68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자기표절인가? — 91
69 유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각각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묶어 저서로 출판할 경우 연구윤리 및 저작권 차원 문제의 소지가 있는가? — 92
70 사회과학연구에서 동일한 연구모형을 수립한 후, 한국과 미국 데이터로 결과를 분리하여 각각 한국과 미국에 출판할 경우 자기표절에 포함되는가? — 94
71 A와 B라는 실험데이터로 각각 논문을 출판한 후, A와 B의 연계성을 주제로 하는 신규 논문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인가? — 95
72 대학원생이 참여한 연구용역과제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학위논문을 제출하면서 보고서에 대한 인용을 빠트렸다면, 연구부정행위인가? — 96
73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재사용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97
74 국내학술지에 영문으로 출판한 논문을 몇 년 후 해외 학술지에 이중게재하였다. 해당 연구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98
76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공동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흐름과 연구의 방향이 다른 두 논문의 출판이 가능한가? —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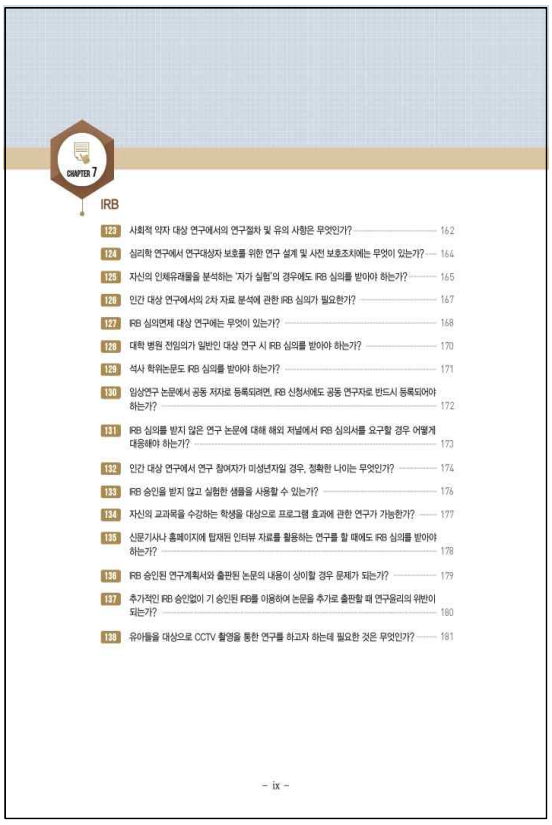
CHAPTER 6

연구부정행위 검증

95 논문표절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서의 표절을 결정하는 유사도율(%)이나, 명확한 기준, 지침 등이 있는가? — 124
96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부정행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126
9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자가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예비조사위원회 명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가? — 128
98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 129
99 연구부정행위 제보 이후 해당 기관의 예비조사 위원회로부터 출석 및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이 때 출석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가? — 130
100 지도교수와 학부생이 함께 연구한 내용을 학술지에 출판하면서, 학부생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하고 논문을 투고하였다.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제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가? — 131
101 대학 전임교원 채용 지원자의 논문에서 제기된 연구부정행위는 누가 검증해야 하는가? — 133
102 학술지에서 논문을 검증하여 조사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였다. 소속 기관은 학회의 검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정할 수 있는가? — 134
103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가 남아있는 대학의 경우, 5년 이전의 학위논문은 검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135
104 모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던 중에 표절과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었다. 학술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136
105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검증을 마친 후, 이에 대한 결과 통보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137
106 학위논문의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이 논문이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밝혀도 자기표절인가? — 138
107 논문을 철회하면 연구윤리 검증 대상이 되는가? — 140
108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141
109 외부기관에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의뢰하려고 할 때, 그 대상과 절차는 무엇인가? — 143
110 타 기관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제보와 관련하여 검증 주체는 어디인가? — 144
111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 145
112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만족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46

한국사회적질학회 2018년 가을 학술대회(2018.11.03)
여성·가족 정책의 이슈를 통해 본 사회적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안내 및 자료 배포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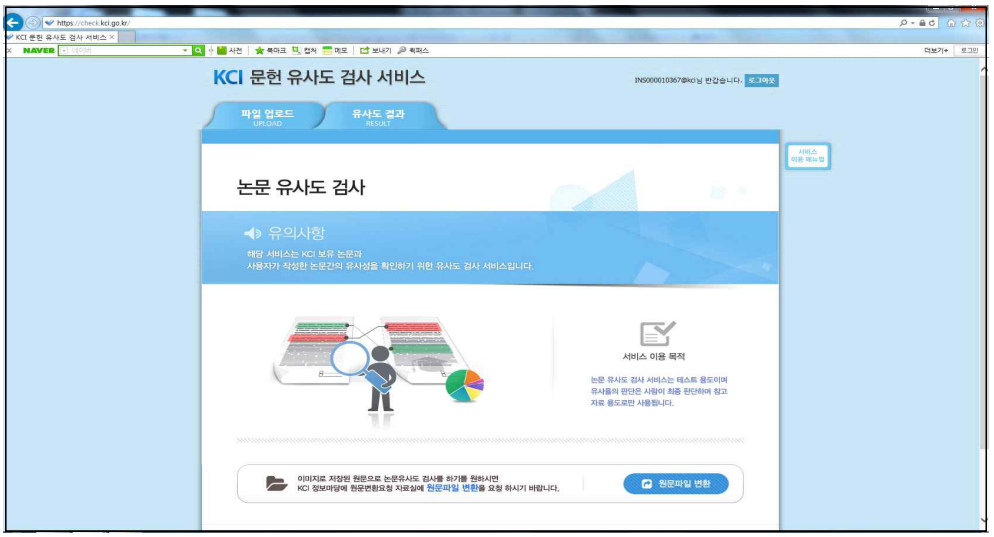
CHAPTER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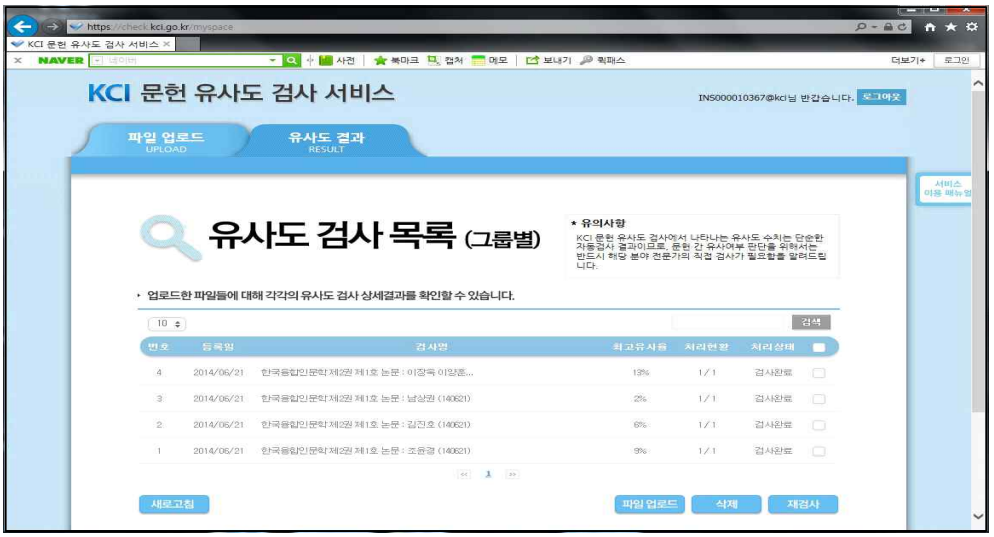
IR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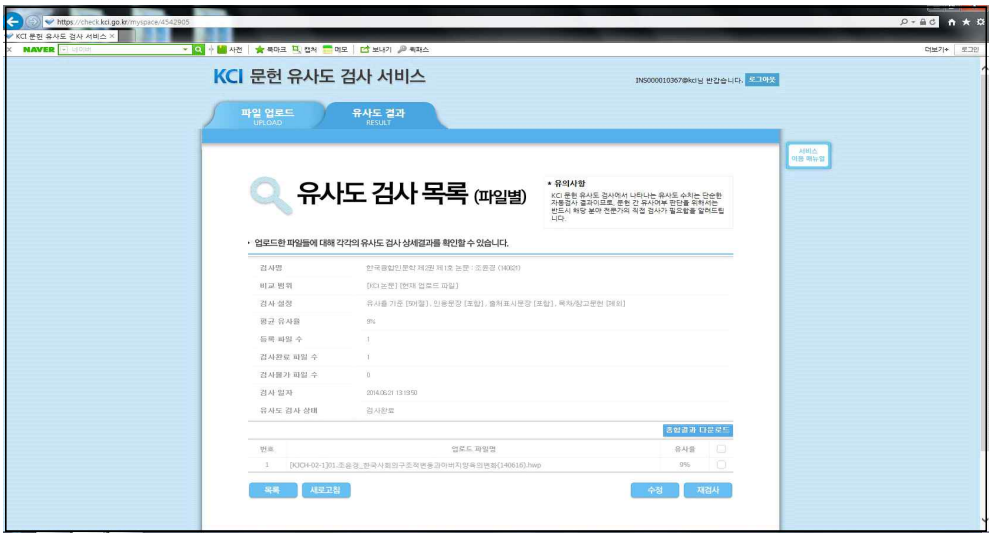
123 사회적 약자 대상 연구에서의 연구절차 및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162
124 심리학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연구 설계 및 사전 보호조치에는 무엇이 있는가? 164
125 자신의 인체유래물을 분석하는 '자기 실험'의 경우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65
126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2차 자료 분석에 관한 IRB 심의가 필요한가? 167
127 IRB 심의면제 대상 연구에는 무엇이 있는가? 168
128 대학 병원 전임의가 일반인 대상 연구 시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70
129 석사 학위논문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71
130 임상연구 논문에서 공동 저자로 등록되려면, IRB 신청서에도 공동 연구자로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가? 172
131 IRB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 논문에 대해 해외 저널에서 IRB 심의서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73
132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정확한 나이는 무엇인가? 174
133 IRB 승인을 받지 않고 실험한 샘플을 사용할 수 있는가? 176
134 자신의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가 가능한가? 177
135 신문기사나 홈페이지에 탑재된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를 할 때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78
136 IRB 승인된 연구계획서와 출판된 논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문제가 되는가? 179
137 추가적인 IRB 승인없이 기 승인된 IRB를 이용하여 논문을 추가로 출판할 때 연구윤리의 위반이 되는가? 180
138 유아들을 대상으로 CCTV 촬영을 통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81

한국사회적질학회 2018년 가을 학술대회(2018.11.03)
여성·가족 정책의 이슈를 통해 본 사회적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1)





한국사회적질학회 2018년 가을 학술대회(2018.11.03)
여성·가족 정책의 이슈를 통해 본 사회적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2)